

『삼국유사』의 편찬의도 및 전략

강 명 혜

(송실대학교 강사)

I. 서 언

II. 『삼국유사』의 편찬의도 및 전략

III. 결 언

<국문 요약>

본고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는 어떤 목적의식이나 이념이 있었을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삼국유사 텍스트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며, 삼국유사의 특성을 고구하고자 했다. 일연은 『삼국유사』 서문에서 이 글을 찬술하고 있는 목적 및 의도, 전략 등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것은 『삼국사기』에 실리지 못하고 누락된 ‘괴력난신적 이야기’를 수록하는 것, 국가 및 종교와 관련된 사건을 좀 더 ‘생생하게 입체화해서 실감있게 수용되도록 하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일관된 사관은 <紀異>는 물론이고 <興法> 이하 <孝善>편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서문에서 언급한 ‘신이한 내용’은 전 『삼국유사』를 관통하는 일주제이며, 일연의 주된 의도이며, 『삼국유사』라고 명명한 이유인 것이다.

결국, ‘신이한 이야기’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오랫동안 회자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고 전달, 전파하도록 특별한 장치, 즉 비유나 상징을 이용한 신이하고 이상하고 특이한 이야기담을 일컫는다. 즉, 현대의 문학적 용어를 빌자면 결국 糖衣가 입혀진 것이다. 이렇듯이 문학적 당의가 입혀져서 신이하고 괴이하고 이상한 이야기담으로 변신한 다음에야 비로소 인구에 회자되면서 오랜 시간 보존되어 오다가 기록되었다. 따라서 文學糖衣는 口碑物의 필요충분조건이며, 표면적으로는 황당무계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거나 비논리적인 인물, 사건 등으로 구성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어떤 중요한 교훈과 가치를 담고 대대로 전달되는 이야기담이다. 일연은 이렇듯이 황당한 이야기 속에 내재한 진실과 사실, 교훈 등을 간파하고 인정하고 납득했기에 역사적 사료로서 수록했다고 보았다. 즉, 문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문학이 가지고 있는 糖衣說(명칭은 몰랐겠지만)의 장점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구조는 문학적 방식과 사관으로 접근할 때 보다 진실되기도 사실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주제어: 신이, 문학당의, 구비물, 문학적 마인드, 교훈.

I. 서 언

일연선사는 『삼국유사』에서 무엇을 저술하려고 했는가? 어떤 의식과 주관관을 지니고 이 책을 찬술했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가? 이 책을 관통하는 일관된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가 하는 愚問에서부터 본고의 논의는 출발한다.

사실 삼국유사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어떤 성격 및 특성을 지녔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학들의 연구가 있다.¹⁾ 현재까지의 대략적인 연구 특징을 보면 특이하게도 국문학자들은 삼국유사를 문학의 寶庫로 보면서 문학적 특징, 즉 설화나 향가, 찬시 등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고, 불교에 관심이 많거나 불교 관련 연구자들은 삼국유사를 불교적 사료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했으며, 민속학자들은 삼국유사 텍스트에서 민속적 사료를 고구해서 밝혔고, 사학자들은 역사적 사료로서 삼국유사를 원전 텍스트로 보고 이를 연구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정치학 관련 학자들은 삼국유사를 정치적 사료로 보고 연구하고 있다. 물론 이들 한두개를 복합

-
- 1) 안병희, 김철준, 정구복, 정규복, 이강래 등은 이 책을 역사서로, 김영태, 김상현, 김태영, 고익보, 허홍식, 홍윤식, 최병현, 진홍섭 등은 이 책은 불교사 내지는 불교문화사적 성격이 강한 저서로, 이어령, 황패강, 조동일 등의 문학연구자들은 문학의 보고로 보고 있으며,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정치사상사의 내용이 주축인 것으로(김석근, 안외순)보고 있다. 특히 黃涇江은 『삼국유사』가 역사책이나 이야기책이냐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 책은 '찬술의 자세, 서술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설화 문학서 내지 설화 집성을 목적인 찬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연구자인 이기백도 이를 사학사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김열규, 김택규, 박진태, 송재용 등은 『삼국유사』를 역사적 민족지나 민속지 내지는 민속사로 보기도 한다. 또한 남권희, 유부현, 김상현, 하정용 등에 의해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김상현, 유택일, 이기백, 이은식, 소상식 등에 의해 『삼국유사』의 원전 성격과 관련된 편찬과 간행의 문제, 즉 편찬의 시점, 편찬자의 정체와 그 수효, 간행시기, 일연 생존의 원고의 완성 여부 등, 『삼국유사』 전반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했다.

해서 함께 고찰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그렇다면 『삼국유사』는 史書이기도, 문학서이기도, 민속자료이기도, 불교서이기도, 정치사이기도 한 複合書인가? 실제로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禪師 한 개인에 의해 작성된 “역사 이면의 野史, 민간에 전하는 雜史, 漫錄, 옛기록, 금석문 등을 포용한 雜史”²⁾의 성격을 띤 또 다른 역사서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체제도 정연하지 못하다는 평을 일부 받고도 있으며³⁾, 편자가 일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참여해서 일관된 체계나 지침이 결여된 채 작성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도 보이고 있다. 또 실제 읽어보아도 史書인지, 문학서인지, 불교서인지, 기록문인지가 애매하기도 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혹자는 불교적 유산물인 불교적 사료로, 혹자는 역사서로, 혹자는 향가와 설화집의 보고인 문학서로, 연구자 자신의 필요충분 요건에 의해 정의내리고 있는 실정이며, 조선시대 유학자들한테는 “허황하여 믿기 어려운 잡서” 등으로 까지 평가받았던 것이다.⁴⁾

-
- 2) 화경고전문학연구회편, 황패강, 「삼국유사 해제」, 『삼국유사의 문학적 탐구』(이회, 2008), p. 9.
- 3) “삼국유사는 내용이 다소 황당하다거나 비현실적이고 인과를 설명하는 논리적 전개과정이 상징과 비유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일 뿐이다”, 김영수, 「찬기과랑가연구재고」, 『삼국유사의 문학적 탐구』(이회, 2008), p. 397.
- 4) “고려의 승 無極 一然이 『삼국유사』를 편찬하였다. 이 책은 전적으로 승려들의 事迹을 다룬 것이지만 王曆篇에는 國事에 대한 것도 말한 것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허황된 이야기이다. ...불만한 것이 못된다. 동사강목에서도 <怪說辨證>항에 보면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중략 이는 모두 괴이한 말을 취한 것으로서 말이 되지 않는 사실이라 모두 취하지 않았다.-此言皆怪誕濛會不成說話 今皆不取”, 順菴先生文集卷之十三, 雜著, 椽軒隨筆(下) 戶牖雜錄附,
“그 책은 불교들이 불교를 세운 원류를 근본으로 삼아서 지은 까닭에 간혹 연대를 상고할 만한 것이 있으나 오로지 이단의 허탄스러운 이야기 들이다. 후에 본조(조선) 내려와 통감(동국통감)을 엮을 때 많이 취하여 기록하였다. “其書本爲佛氏入教之源流而作故 間有年代之可考 而專是異端虛誕之說 後來本朝選通鑑時 多取錄焉”, 『增補文獻備考』, “藝文考” 3에서는 ‘삼국유사’ 5권

어떻게 한 권의 저서가 이렇듯이 모든 장르의 원전텍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설화는 說話集에, 역사는 史書에, 불교적 내용은 佛經이나 佛籍에 佛敎史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라고 할 때 이러한 편저 방식은 모두를 당황하게 하기에 충분한 소지를 제공한다.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삼국유사』 연구는 연구자의 시각에 의해 연구자의 관심적 항목만이 대상이 되어 연구될 수밖에 없었고 공통된 사관으로 모두를 동일선상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힘든 일이었음이 그간의 사정이다.

『삼국유사』 텍스트를 살펴보면 이렇듯이 다양한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奇異하고도 神異한 내용을 다룬 설화가 『삼국유사』 텍스트에 상당량 등장하기 때문이며, 이 ‘설화적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 있다는 점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학과 역사의 관계는 예술자체가 애당초 서로 다른 코드에 속하며, 서로 다른 언어코드로서 상반되는 기술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인간사회의 묵시적 원칙에 속한다. 따라서 이 두 장르를 동일선상에서 논의한다거나 동일한 시각으로 공분모함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수를 범하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과 역사는 교훈이나 사실, 지향하는 점이 애당초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도달점이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해도 이를 표출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코드로서, 장르자체나 기술방식, 예술체계가 거의 상반되는 장르인 것이다. 『삼국유사』는 이렇듯이 상반된 장르가 동일선상에서 엮이고 있고 함께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독자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으며,

고려승 무극 일연 위유미라고 하고 순암의 評文을 인용하였는데, 그 평문인 즉 『동사강목』 범례 중의 글을 그대로 간추려서 실은 것이다 ‘藝文考’3. ‘三國遺事 五卷 高麗僧無極一然撰’.

현종 때 이규경은 『五洲衍文長箋散稿』(권 57 史籍辨證說)에서 “『삼국유사』 5권은 기이편이 2권, 흥법, 의해, 신주, 감통 등편이 아울러 3권으로 제 5권의 머리에 ‘국존 조계종 가지산하 인각사주지 원경충조대선사 일연이 엮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야기들이 황탄하다. 三國遺事五卷 曰奇異二卷 曰興法, 曰義解 曰神呪 曰感通并三卷 第五卷之首曰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沖熙大禪師一然撰 其說荒誕”

이러한 특징이 그간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일관적이며 논리적인 결론이나 성격으로 규정되게 하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이 단순명쾌한 사실을 당대 최고 지성인이면서 높은 경지를 지녔던 선사 일연이 진정으로 몰랐을 것이라고는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는 어떤 목적의식이나 이념이 있었을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삼국유사 텍스트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며, 삼국유사의 언술방식, 서술방식을 통해서 삼국유사의 특성을 고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논문 수록 지면 사정상 이 논문은 2편으로 나누어서 수록될 것이다. 따라서 1편에서는 삼국유사의 편찬의도 및 전략을, 2편에서는 『삼국유사』의 언술방식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즉 일연이 생존했던 고려시대의 글쓰기 ‘표현기법’ 등도 살피면서 이와 연맥된 『삼국유사』의 글쓰기 전략도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간의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았지만 자료의 희소성이라든가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그간의 연구는 오히려 소략하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 텍스트를 부분부분 천착하는 작업도 더욱 더 심도있게 장르별(항목별)로 다루어져야 하며, 삼국유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한 필요충분의 소지를 지닌다. 전자가 나무에 대한 연구라면 후자는 숲을 조망하는 연구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후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이다. 숲을 조망하다보니 애석하게도 나무들의 특징이 간과되거나 소홀히 취급하게 된다는 한계점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라는 거대한 숲을 하나로 관통하는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시대적 요구를 의식하며 논의를 진행한다.

II. 『삼국유사』의 편찬의도 및 전략

일연선사는 자신이 찬술한 글을 『三國遺事』라고 명명했다. ‘遺事’란 ‘남겨지고 누락된 일’로 해석된다.⁵⁾ 그렇다면 이는 ‘三國의 사료’를 작성

한 후, 여기에서 누락된 ‘나머지’, 즉, ‘누락된 史料’를 기술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일연은 『삼국유사』 작성 전에는 ‘삼국의 역사’를 저술한 바가 없다. 알려진 바로는 일연 생존 당시 ‘삼국의 역사’를 기술한 책은 바로 『삼국사기』 뿐이다. 그렇다면 일연은 『삼국사기』를 의식하면서 『삼국유사』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사기』는 王命에 의해 士官(김부식)이 저술한 正史이다. 사료에 충실히 입각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저술되었으며, 저술 체제도 정연하고, 기술 방식도 직접적인 진술에 의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공인된 史書인 것이다. 이렇듯이 공식적인 ‘사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왜 굳이 일연은 ‘유사’를 편찬해야만 했을까? 물론 “『삼국사기』를 의식해서 『삼국유사』를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삼국유사』 서문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오히려 『삼국유사』의 ‘遺事’는 일연선사 사후 그의 제자들이 일연선사의 ‘遺作’이라는 의미로 명명한 것이라 생각한다.”⁶⁾는 설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수록된 책을 굳이 『삼국유사』라고 붙인 까닭을 간과할 수는 없다. 정말로 일연은 ‘서문’에서 편찬 의도 및 목적 등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을까? 이 점은 삼국유사 텍스트를 통해 천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연(1206-1289)은 승려로서 이름을 떨쳤음은 물론이려니와 학문 분야에도 뛰어나서 100권의 저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259년에는 大禪師의 승계를 계수받기도 하고, 1277년에는 충렬왕의 명에 따라 운문사에 주석하다가 國尊에 책봉되었으며, 1278년 73세쯤 삼국유사의 편찬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이렇듯이 일연은 이미 당대에 자타가 공인

5) “遺事라 함은 正史에 遺漏된 瑣雜한 事實을 意味하는 者”라 한 최남선의 지적을 염두에 둔다면, ‘유사’의 제명은 곧 ‘正史’로서의 『삼국사기』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강래, “한국고대사를 위한 삼국유사의 독법”(삼국유사연구, 일연학연구원, 2005), P. 243재인용.

6) 최광식, 「一然의 佛敎史 認識」, 『삼국유사연구』(일연학연구원, 2005), P. 174.

7) 여러 사료 참조.

하는 추앙된 국사로서 왕을 비롯해서 궁정과 사찰은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존경받았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고려사회는 일연 생존 시에도 왕이 5번이나 바뀌는(熙宗, 康宗, 高宗, 元宗, 忠烈王)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며 몽고항쟁에 지게 되어 왕 이름에 ‘충’자를 붙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었음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고려는 수시로 명멸하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500년 동안 곳곳하게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고수했다는 점 등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고려를 이야기하면서 몽고항쟁과 무신정치의 폐약, 원나라의 간섭, 일부 권신의 퇴폐상 등만을 부각하는 것은 조선조 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며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본 연구자의 관점이다. 고려가 아무 문제없는 사회였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대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팔만대장경’, ‘천문적 지식’, ‘고려청자’와 같은 뛰어난 문화재를 집성한 그 저력 및 배경이 등한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연의 『삼국유사』를 단순히 ‘설화’나 ‘기이한 이야기담’이 수록된 사서라고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좀 더 상세히 천착해 본다.

주지하다시피 작가가 글을 작성할 때 그 서문에는 작가의 이념이나 저술 목적, 저술방식 등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따라서 서문을 통해 일연 자신은 『삼국유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찬술 의도 및 목적, 방식 등은 무엇인지를 추출해 볼 수 있다. 『삼국유사』 ‘<紀異> 第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일연이 직접 작성한 서문이 『삼국유사』에 엄연히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서하여 말한다.

대체로 옛날 성인은 예절과 음악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고, 인과 의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베풀었다. 그런데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왕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符命을 얻고 圖籍을 받게 된다. 때문에 보통 사관과는 다른 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뒤에라야 大變의 기회를 타서 大器를 잡아 大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河水에서 그림이 나왔고, 洛水에서 글이 나와서 이로서 聖人이 일어났던 것이다. 무지개가 神母의 몸을 두드러니 伏羲를 낳고 龍이 女登에게 교접하더니 炎帝를 낳았다. 皇娥가 窮桑이라는 들판에서 노는데 자칭 白帝의 아들이라고 하는 神童이 나서 皇娥와 사귀더니 少昊를 낳았다. 簡狄은 알(卵) 하나를 삼키더니 契를 낳고 姜嫄은 한 巨人의 발자취를 밟고서 弃를 낳았다. 堯의 어머니는 잉태한 지 14개월이 된 뒤에 堯를 낳았고 沛公의 어머니는 龍과 교접해 沛公을 낳았다. 이 뒤로는 이런 일이 많지만 여기에선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어찌 괴이할 것이 있으랴. 이 기이편을 이 책의 첫머리에 실는 것은 그 뜻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敍曰 大抵古之聖人 方其禮樂興邦 仁義設教 則怪力亂神 在所不語 然而帝王之將興也 膺符命 受圖籙 必有以移於人者 然後 能乘大變 握大器 成大業治. ... 然則三國之始祖 皆發乎神異 何足怪哉 此奇異之所以漸諸篇也 意在斯焉⁸⁾ - 밑줄 필자-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第一)

이렇듯이 이미 일연은 『삼국유사』 서문에서 자신이 이 글을 찬술하고 있는 ‘목적’ 및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 ‘서문’에 의하면 일연은 “제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보통사람과 다른 일”이 있게 마련인데도 이렇듯이 보통 사람과 다른 일 즉,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고 있다. 이어서 중국 始祖나 聖인들의 신이하고도 기이한 일을 예시하면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어찌 괴이한 일이 있으랴”라고 언급하면서 “기이편을 이 책의 첫머리에 실는 것은 그 뜻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뜻과 의지,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일연이 『삼국유사』를 찬술하는 목적은 바로 “괴력난신”적인 내용을 수록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사기』는 소위 ‘괴력난신’적인 내용은 거의 수록하지 않았다. 물론 삼국의 始祖에 대해 기술하면서 약간의 언급은 했지만 상세히 기록하지는 않았다. 또한 삼국의 역사이니만큼 당연히 『삼국의 시조』부터 기술되고 있다. 거기에 비해 『삼국유사』는 ‘고조선’부터 언급하고 있

8) 一然, 『三國遺事』 卷 第一 <紀異>

다는 점에서 『삼국사기』와 차별화된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종교(불교)’의 ‘이입과정’ 및 ‘전파’, ‘영향’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으며, 『삼국사기』가 연대를 제시하면서 체계있고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사료를 제시하는 것에 비해서, 『삼국유사』는 인물 중심으로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결국 일연은 『삼국사기』에서는 누락시켰지만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퍼져있던 우리 선조들의 ‘괴력난신’적 이야기를 수록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 서문에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일연이 왜 ‘삼국유사’라고 명명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즉, ①『삼국사기』에 실리지 못하고 누락된 ‘괴력난신적 이야기(神異한 내용)’를 수록하는 것, ②‘국가 및 종교와 관련된 사건’을 『삼국사기』와는 다르게 좀 더 ‘생생하게 입체화된 기술방식에 의해 보다 실감있게 수용되도록 하려는 목적’이 바로 일연이 『삼국유사』를 작성한 의도된 전략인 것이다. 그리고 “괴력난신”적 내용이란 바로 세간에서 지칭하는 ‘설화적 내용’에 해당된다. 일연이 언급한 ‘괴력난신’은 ‘삼국유사’ 텍스트에서는 ‘기이’로 표현된다. ‘괴력난신’은 타인이 보내는 비판적 語句일 뿐이며, 실은 ‘신이한 내용을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일연의 본 의도이며 지향하는 바인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유사』 작성의 의도와 전략은 <기이편> 序에 수록되었다고 해서 <기이편>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 후 모든 텍스트에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일까? 일연의 序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이 기이편을 이 책의 첫머리에 신는 것은 그 뜻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此奇異之所以漸諸篇也 意在斯焉)”라는 맥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이 기이편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전체의 저술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만약 <기이편>의 국가와 관련된 내용과 <홍법편>이하의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저술하는 시각이 상이했다면 序文을 각각 작성했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추론이다. 비록 제목이나 체제 분류가 논리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와 종교와

관련된 것을 서로 뒤섞지 않고 분류했음을 볼 때, 일연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兩分했으며, 序에서 밝힌 의지가 <기이편>에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식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텍스트 자체의 천착을 통해서 추출하는 것이 가장 명료할 것이다.

서문 다음의 내용부터 살펴본다. 우선, 『삼국유사』 ‘기이편’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기원 및 기틀이 되는 역대 시조들(고조선부터)의 이야기이다. 이 내용은 신이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른바 신이한 ‘괴력난신’적 내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연은 서문에서 밝힌 바처럼 기이편 제 1권부터 ‘괴력난신’적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이’편 첫머리 장식은 ‘고조선 왕검조선’에 대한 기록으로, 『魏書』와 『古記』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개국시조인 ‘단군’의 역사가 전개된다. 비록 기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이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밝히려는 명분과 의도가 행간에서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작가의 거시적이면서도 확장된 사고가 감지된다.

“『魏書』에 말하기를 지금부터 2천년 전에 壇君王儷이 계서 阿斯達에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朝鮮이라 불렀는데 高(중국의 堯임금)와 같은 시기였다. 또 『古記』에 이런 말이 있다. 옛날에 桓因의 庶子 桓雄이 계서,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매우 갈구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三危太伯山(산이름)을 내려다 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에 天符印(신의 위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표상이 되는 세 가지 물건)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그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太伯山 마루턱에 있는 神壇樹 밑에 내려왔다. 이곳을 神市라 불렀다. 그리고 이 분을 桓雄天王이라 한다. 그는 風伯雨師雲師를 거느리고 穀(곡식) · 命(수명) · 病(질병) · 刑(형벌) · 善 · 惡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 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 때 범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神雄, 즉 桓雄에게 빌어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 때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百日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고 三七(삼일)동안

르하니 꿈은 약속한 지 3·7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지키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꿈은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혼인했더니 이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기의 이름을 檀君王儉이라 일컬었다. 단군왕검은 唐高(唐堯를 말함)가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朝鮮이라 불렀다. 또 도읍을 白岳山 阿斯達로 옮기니 弓忽山 또는 方忽山이라고도 하고 今彌達이라고도 한다.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 周나라 虎王(무왕)이 왕위에 오른 己卯년에 箕子를 조선에 봉했다. 이에 단군은 藏唐京으로 옮겨 갔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1908세였다고 한다.”(『三國遺事』卷2, 紀異, 古朝鮮 王儉朝鮮)

이들 신이한 이야기담은 일연 개인의 창작물은 아니다. 아마도 당시에 구비전승되던 이야기를 채록해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기술방식에 익숙한 독자들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무리 선사시대라 할지라도 인간의 始母가 꿈이라는 사실은 수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꿈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썩과 마늘만 먹었다는 이야기도 황당하다. 일연은 여기에 대해 “제왕이 태어나고 자라날 때 보통사람과 다르다”고 전제한다.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민족 조상이 “꿈이며 썩과 마늘을 먹으면서 3·7일을 견디어 여자로 변모되었던 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 아무리 몇 억년, 몇 만년, 몇 천년 전이라도 실제로는 ‘꿈’이 ‘인간’으로 ‘변모’되거나 ‘용’과 ‘교접’하거나, ‘알’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서문에 제시된 ‘중국의 시조나 성인’은 ‘용과 교접’, ‘거인의 발자취를 밟고’, ‘신동이 황아와 사귀어서’, ‘무지개가 신모의 몸을 두르더니’, ‘용과 큰 못에서 교접’으로 탄생했다는 탄생담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에 해당된다. 큰 인물이기에 ‘보통’사람과는 다른 탄생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解號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 이들 이야기담들의 의미를 문면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

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역사상 문자가 존재하지 않던 당시의 여러 이야기들은 과연 어떻게 생성, 전달되었을까를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문자로 기록되어 전달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순전히 개인의 기억력이나 전달, 전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쉽게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달, 전파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잘 기억하고 수월하게 전달, 전파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 즉 비유나 상징을 이용해서 신이하고 이상하고 특이한 이야기담으로 포장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은 이러한 특별하고 신이한 작품들만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이를 전달했던 까닭에 오랜 시간 유지, 전파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문학적 용어를 빌자면 결국 糖衣가 입혀진 것이다. 이렇듯이 문학적 당의가 입혀져서 신이하고 괴이하고 이상한 이야기담으로 변신한 다음에야 비로소 인구에 회자되면서 오랜 시간 보존되어 오다가 문자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文學糖衣는 口碑物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작품, 즉 고시거나 설화 등을 접근할 때 그 원관념을 파악할 수 있다. <단군신화>의 경우도 현 학계에서는, ‘곰과 호랑이’를, 통상 ‘곰 부족(곰을 숭배하는 부족, 혹은 곰은 땅신이나 여성을 뜻하는 것으로 환웅과 결합하게 된 정치집단)과, ‘호랑이 부족(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라고 설정하고 ‘곰을 숭상하는 부족의 승리담’이라고 해서 실제 존재했던 민족이나 민족 명칭에서 찾고자 하는데, 이는 모순된 형상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만약 정말로 곰 숭배 부족이 승리한 이야기라면 우리나라에는 곰이야기담이 곳곳에 전승되고 있거나 널리 유포되었거나 ‘곰 숭배 사상’이 현재까지 내재해 있어야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 기술된다고 볼 때, 곰 숭배사상이나 곰 이야기는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패배자인 호랑이를 섬기거나 호랑이 담이 성행하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및 현실은

‘곰부족’이나 ‘호랑이부족’ 설을 수용하기 더욱 힘들게 한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다.⁹⁾ 따라서 곰이나 호랑이를 은유나 상징, 알레고리로 보고 그것의 원관념을 찾을 때 보다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단군신화>는 우리나라 건국과 연관된 이야기로서 당의가 입혀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이 <단군신화>는 당의를 입음으로서 신이하고 괴이한 이야기로 변모되어 인구에 회자되면서 지속해서 내려왔고, 고려시대 일연에 의해 『삼국유사』에 수록되었다고 상정할 수 있다.¹⁰⁾

<단군신화> 외에도 이러한 신이한 이야기는 ‘신이편’에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모든 始祖들은 물론이고 왕후들도 신이한 탄생담의 주인공들로 표현된다.

“이날 沙梁里에 있는 闕英井 가에 鷄籠이 나타나서 왼쪽 갈비에서 어린 계집애를 낳았다. 얼굴과 모습이 매우 고왔으나 입술이 마치 닭의 입부리와 같았다. 이에 月城 북쪽에 있는 냇물에 목욕시켰더니 그 부리가 떨어졌다. 그 일 때문에 그 내를 撥川이라고 한다.(是日 沙梁里闕英井邊 有鷄籠現而左脇誕生童女 姿容秀麗 然而脣似鷄鶯 將浴於月城北川 其鶯撥落 因名其川曰撥川)” (『삼국유사』 卷 第一, 王曆, 新羅始祖 赫居世王)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왕비인 알영에 대한 기록이다. 주지하다시피 박혁거세는 ‘알’에서 탄생했다. 역시 신이하고 기이하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그 妃인 알영마저도 “계룡이 나타나서 왼쪽 갈비에서 어린 아이를 낳았다”는 실로 허탄하고 기이한 탄생담을 지니고 있다. 왕 뿐만이 아니라 왕비도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설정이다. 사실 앞에서 제시한 단군신화도 사실상 주된 이야기는 환인이나 환웅보다는 시조모인 ‘웅녀’의 이야기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웅녀’가 서술의 주체로 다루어지고 있긴 하다. 환인이나 환웅이 처음부터 완벽한 인물이

9) 강명혜, 「<단군신화> 새롭게 읽기」, 『동방학』13집, 한서대학교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05.

10) 강명혜, 「<단군신화> 새롭게 읽기」에서 그 의미 등을 이미 고찰했다.

었던 것에 비해 웅녀는 처음에는 하찮은 인물(곰)이지만 점차 시련을 거쳐서 자격을 획득하는 영웅의 일생을 보이는 주인공으로 제시된다. 신라의 시조모인 알영도 완벽한 ‘신이한 인물’이 아닌 것으로 제시된다. 결핍 요소를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즉 “입술이 닭의 입부리와 같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핍적 요소는 고조선 시조모인 웅녀가 갖은 시련을 겪으면서 해소해 나가듯이 알영도 ‘넋물’을 통해서 해소한 후 완벽한 인물로 거듭난다. 이러한 구조적 방식은 고구려 시조모인 유화나 고려의 웅녀 등도 지니는 공분모적 요소에 해당된다.¹¹⁾ 아무튼 알영도 기이한 탄생담을 지니고 있는 성인에 해당된다. 사실 세상을 뜬 후에도 왕과 더불어 ‘신’으로 대접받고 추앙된다. 이렇듯이 신이한 탄생담을 지니는 알영도 실제로 신라 시조모인 실존했던 인물이다. 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 그리고 이를 기록한 서적은 ‘설화집’이나 ‘야담집’이 아니라 엄연한 ‘史書’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종일관 이러한 신이한 이야기는 지속된다. 백제 무왕의 탄생담도 신이하기가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다.

“第 30代 武王의 이름은 璋이다. 그 어머니는 寡婦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못 속의 龍과 관계하여 璋을 낳았던 것이다. 어렸을 때 이름은 서동이다. 재능과 기량이 커서 측량할 수 없었다. 항상 마를 깨서 팔아 생활했다.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이 서동이라 이름했다(第三十 武王名璋 母寡居築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而生 小名薯童 器量難測. 常掘薯蕷賣 爲活業 國人因以爲名)”(『삼국유사』 卷 第二, 紀異, 武王)

무왕의 혈통이 고귀한 신분임을 밝히고 있는 설화이다. 무왕은 어릴 때 상당히 비천한 신분(서동=맛둥이)이었는데 그 탄생설화는 이렇듯이 신이하고 기이하다. 즉 무왕의 어머니가 “남쪽 못 속의 용”과 관계해서 ‘서동’을 낳았고 이 서동은 결국 백제의 무왕이 되었다는 신이한 이야기이다. 이는 서문에서 밝힌 중국의 예와도 거의 부합되는 내용이다. ‘인

11) 이러한 구조적 방식도 우연의 일치라고는 할 수 없다. 의미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다.

간'과 '용'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은 신이하고 신비로운 영웅일 수밖에 없다는 설정이다. 실제 탄생 초기에는 평범 이하의 인물이었던 무왕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자신의 지략과 의지, 그리고 하늘의 조력에 의해 극복해 나간다. 결국은 공주와 결혼하고 왕이 된다는 영웅담의 기본적인 스토리에 완벽히 부합되는 서사구조를 보인다. 무왕인 서동은 보통의 평범한 인물이 아닌 것이다. 그 기저에는 바로 신이한 탄생, 즉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음을 증거하는 신이한 탄생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단군신화> 외에 그 다음 이어지는 '始祖들이 알이나 바가지에서 탄생한다'는 이야기담도, '모친이 용이나 지렁이(地龍, 池龍), 거북이 등 이물과 교접하여 낳았다'라는 이야기담도 결국은 당의를 입힌 문학적인 화법이나 표현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모계와 부계의 신성성과 고귀함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 그 자손은 특별하며 신성한 존재라는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 문학적인 糖衣를 입힌 경우라고 본다. 이 때 '알이나 바가지'는 임신한 부인(원관념)을 비유한 보조관념이며, '용이나 지렁이, 거북' 등은 남근 상징으로서 훌륭한 남자를 의미한다(중국 시조나 성인이 용과의 교접으로 인해 탄생되었다거나 무왕이 어머니가 못가의 池龍과의 사이에서 탄생했다는 것 등도 모두 그러하다). 인류 형성 초기에는 어느 정도는 현대와는 아주 다른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은 한다고 해도,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들, 이를테면 알이나 바가지에서 인간이 태어난다거나, 꿈이 인간이 된다거나, 母系나 父系가 인간이 아닌 다른 異物이라든가 하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일련은 이렇듯이 황당한 이야기 속에 내재한 진실과 사실, 교훈 등을 간파하고 인정하고 납득했기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료로서 수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구조는 이러한 방식과 사관을 가지고 이해할 때 보다 사실에 접

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이적 사관은 과연 기이편에만 해당될까? 『삼국유사』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왕력편>¹²⁾, <기이> 제 1, 213)는 연표나 각 나라의 시조나 영웅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다음 <홍법편>부터는 종교(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내용은 크게 분류하면 (1) '국가 기틀 대한 역사서', (2) '종교(불교)의 역사서'인 셈이다.¹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 기틀에 대한 史의 내용인 기이편은 대부분 신이하고도 신기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종교적 내용을 다룬 홍법편부터는 어떠할까? 홍법편부터는 이들의 내용이나 표현방식이 '신이'하고와 관련이 없을까?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종교' 자체가 원래 '신이'와 밀접히 연결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때 이 '신이성'은 『삼국유사』 전 텍스트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에 대한 내용이 처음 기록되고 있는 '홍법편'부터는 삼국 불교의 전래, 수용, 공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순도가 고구려에 불교를 전한 것,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한 것, 아도가 신라에 불교를 전한

12) 王曆篇(37): 신라시조 혁거세를 시작으로 고려 태조의 통일 시기까지의 王代와 年表를 圖表式으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있다. 이 책이 역사서임을 밝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 순으로 배열되며 중국 왕력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13) 紀異篇(23): 고조선 이래로 후백제까지 이르는 우리 고대사의 광범위한 영역을 神異의 내용에 의해 전개한다. 위만조선, 마한, 72국, 낙랑국, 남대방, 북대방, 오가야, 북부여, 동부여, 말갈, 발해 등에 대한 기록이다. 설화 및 향가가 제시되고 있다.

14) “왕력은 제왕의 연대기이며, 기이는 신화와 같은 역사적인 신이사를 적은 것이고, 홍법 이하의 일곱편은 불교에 관한 내용으로 불교문화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신이사관에 입각한 사서이며, 불교문화사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내용상으로는 불교관계가 일곱 편이나 되어 『삼국유사』를 불교사 또는 불교문화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에 관한 역사를 다룬 왕력, 기이 두 편이 전체 내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사와 일반사의 양면을 지닌 사서로 이해하여야 한다”라는 최광식의 논 의(최광식, Op. cit., P. 173)는 합당하다.

것, 이차돈의 순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아직도 불교의 전래와 수용 및 공인에 대한 개념의 혼란으로 연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에 전래·수용된 불교와 왕실에 전래·수용된 불교를 구분하지 않아 더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¹⁵⁾”라는 견해처럼 고무적인 사실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불교신앙의 대상인 石塔, 梵鐘, 佛像, 寺刹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며, 불교교리에 능통한 승려에 대한 전기도 상당량 등장한다. 또한 도교에 관한 내용도 제시되고 있고, 고승의 영험성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고승들의 신통한 神術力(神呪)에 대한 신이한 설화 및 귀신(요물)퇴치담도 함께 수반되고 있고, 密敎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 또한 지극한 신심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늘과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담들도 수록된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신이하고 기이하다. 어떤 방식인지 우선 <홍법>편에 수록된 신라에 불교가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된 사건을 다룬 이야기를 살펴본다.

“<新羅本紀>에 보면 법흥대왕이 즉위한 14년에 小臣 이차돈이 불법을 위해 자기 몸을 죽이니 곧 蕭梁 普通 8년 정미에 서천축이 달마대사가 금릉에 온 해다. …” … “一切를 버리기 어려운 것은 身命에 지나지 않으며 小臣이 죽어서 佛敎가 아침에 행해진다면 佛日은 다시 성행하고 聖王께서는 길이 편안하실 것입니다. …”, “… 대왕이 크게 노하여 이를 베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니 有司는 그를 묶어 官術로 데리고 갔다. 舍人은 맹세를 했다. 獄吏가 그의 목을 베자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올랐으며 하늘은 사방이 어두워 저녁의 빛을 감추고 땅이 진동하고 비가 똑똑 떨어졌다. 임금은 슬피하여 눈물이 곤룡포를 적시고 재상들은 근심하여 진땀이 蟬冕에까지 흘렀다. 甘泉이 갑자기 말라서 물고기과 자라가 다투어 뛰고 곧은 나무가 저절로 부러져서 원숭이들이 떼지어 울었다.” (『三國遺事』 卷三, 興法, 原宗興法과 馱鬪滅身)

불교가 널리 전파되고 흥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신이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법흥왕은 이미 불교를 받아들이고 융성하게 하고자 하는 의

15) 최광식, 「一然의 佛敎史 認識」, P. 167.

지(절을 세우고자 함)가 있었으나 신하들이 불신하고 따르지 않는 과정에서 이차돈이 자신이 희생할 뜻을 아뢰면서 야기되는 일련의 사건이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다. 이때의 백미는 목을 베자 ‘붉은 피’ 대신 ‘흰 젖’이 한 길이나 솟아올랐다는 장면이다. 사람의 몸에서 붉은 피 대신 흰 우유가 나올 확률은 0%이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기는 사람이 알아나 바가지에서 태어나거나 용과 교접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신이하고 신기하고 신성하다. 이 사건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異蹟이다. 사실 ‘흰우유’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붉은 피’라는 상식을 뒤 엮는 ‘사건’이면 족한 것이다. 그러나 ‘흰우유’는 또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함유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해 “집집마다 부처를 받들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얻게 되고, 사람마다 佛道를 행하면 마땅히 불교의 이익을 얻게”된다. 사실상 종교와 관련되는 사건이 신이하고 기이한 것은 필요충분 조건에 해당된다. 이는 종교에 관한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興法篇>(7) 다음에 제시되고 있는, 4.塔像篇(30), 5.義解篇(14), 6.神呪篇(3), 7.感通篇(10), 8.避隱篇(10), 9. 孝善篇(5) 등도 대부분 신이한 일과 신기한 사건이나 사적, 인물 묘사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의해>편의 경우도 살펴본다.

“祖師 知識(보양)이 중국에서 佛法을 전해 받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西海 가운데 이르니, 龍이 그를 용궁으로 맞아들여 佛經을 외게 하더니 금빛 비단의 袈裟 한 벌을 주고 겸하여 아들 璃目을 주면서 祖師를 모시고 가게 했다. 그러면서 龍王은 부탁한다. “지금 三國이 시끄러워서 아직은 佛法에 귀의하는 君主가 없지만 만일 내 아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서 鵲岬에 절을 짓고 살면 능히 적병을 피할 수 있을 것이요. 또한 몇 해가 안되어서 반드시 佛法을 보호하는 어진 임금이나와서 삼국을 평정할 것이요” 말을 마치자 서로 작별하고 돌아왔다. 이 골짜기에 이르자 갑자기 늙은 중이 스스로 圓光이라 하면서 도장이 든 케를 안고 나와서 祖師에게 주고서는 이내 없어졌다..까치가 땅을 쪼고 있다. … 그 곳을 파보니 과연 예전 벽돌이 수없이 있었다. 이것을 모아 쌓아올려 탑을 이루니 남은 벽돌이 하나도 없으므로 이곳이 前代의 절터임을 알았다. 여

기에 절을 세우고 살면서 절 이름을 鶴岬寺라고 했다. 그런지 얼마 안되어 고려 태조가 三國을 통일하고 보양법사가 이곳에 절을 짓고 산다는 말을 듣고 5丈岬의 밭 5百結을 합해서 이 절에 바쳤다. … 이목은 항상 절 곁에 있는 작은 못에 살면서 法化를 陰으로 돕고 있었다. 갑자기 어느 해에 몹시 가물어서 밭에 채소가 모두 타고 마르매 보양이 이목을 시켜 비를 내리게 하니 온 지방이 흡족하였다. 天帝가 모르게 죽이려하매 이목이 보양에게 위급함을 고하니 법사가 침상 밑에 숨겨주었다. 이윽고 天使가 뜰에 와서 이목을 내놓으라고 청하여 법사는 뜰앞의 배나무(梨木)을 가리키니 천사는 그것에 벼락을 치고 하늘로 올라갔다. 배나무가 부러졌으므로 용이 쓰다듬으니 곧 되살아났다(혹은 법사가 주문을 외어서 살아났다고도 한다). 그 나무는 근년에 와서 땅에 쓰러졌는데 어떤 사람이 망치를 만들어서 善法堂과 食堂에 안치하였다. 그 망치 자루에는 銘이 있다.”(『三國遺事』 卷第四, 義解 第五, 寶壤梨木)

이 이야기도 신이하고 신기하기는 <기이>편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용이 주인공인 보양 祖師를 용궁으로 불러서 불경을 외게 했다는 것, 아들 이목을 주면서 모시고 가게 했다는 점(처용이야기와 흡사), 까치가 땅을 쪼고 있는 곳을 파서 남은 벽돌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대로 모아서(원래가 절터) 탑을 쌓았다는 것, 용왕의 아들인 이목이 영험함으로 가물면 비가 오게 하고, 이 일로 천제가 이목을 죽이려 했다는 점, 죽이기 위해 사자인 천사를 보냈다는 점, 이목 대신 배나무를 벼락을 쳐서 죽였다는 점, 이목이가 죽을 나무를 쓰다듬어서 다시 살렸다는 점(일설에는 보양) 등은 모두 신이하고 신기하기만 하다. 특히 “사람이 바다 가운데서 용을 만나고, 용궁에 가서 용을 위해 불경을 외었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 나무로 망치를 만들었는데 이 망치 자루에는 명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실제로 ‘용’이 바다 속으로 ‘사람’을 이끌어서 ‘佛經을 들었다’는 것은 아무리 종교적 신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실이라고 납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또한 ‘정치적 신이성’처럼 ‘상징’이나 ‘비유’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근접할 것이다.

실제로는 바닷가 근처에 사는 영향력 있는 귀족, 그것도 후에 정치적 입지가 상당한 인물이 ‘도움’을 준 사실을 그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혹은 이러한 은사 자체가 정황상 부처님의 은사로밖에 볼 수 없는 처지였다면 그 인물을 용으로 상징, 혹은 은유화해서 糖衣를 입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또한 이곳에 등장하는 이목은 ‘이무기’의 유사한 음이라는 점에서 용의 아들인 이무기(능력이 조금 모자란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면서 또한 동음이의어인 ‘梨目’으로 인해 ‘璃目’이 살게 되었다는 편(Pun)의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종교적인 신이성을 다루고 있음에도 ‘재치’와 ‘여유’가 함께 직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홍법>편 이하의 거의 대부분이 부처, 관음보살 등과 관련된 이적이거나 신이한 일과 관련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일연이 직접 창작했거나 목격한 일을 적은 것은 아니다. 물론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바로 진술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술방식이지만 곳곳에서 “자신도 믿기 어렵지만 전해오는 이야기(口傳)라 수록한다”거나, “<國史>에 이렇게 말했다”, “<古記>에 말하기를 …”, “<白月山兩聖成道記>에 이렇게 말하였다”, “山中이 古傳을 상고해 보면 이렇게 말했다”, “절 안에 전해 오는 古記를 상고해 보면”, “<唐續高僧傳> 제十三 편에 실려있는 말이다”, “<求法高僧傳>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등의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아니면 상기해서 기술한다는 부분도 여러 번 제시된다. 이렇듯이 직접 진술하거나, 수록된 書名을 제시하는 방식은 <신의>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이 <홍법> 편 이하의 내용도 <신의>편과 흡사하게 신기하고 신이한 異蹟으로 구성되고 있다. 지면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삼국유사> 전체가 신기한 일이나 신이한 일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단지 <홍법> 이하의 신이나 이적은 모두 불법이나 佛, 부처님, 관음보살 등의 종교와 관련된다는 점이 <신이>편의 신이나 신기한 내용과 변별될 뿐이다. 이를테면 부처상한테 놓아둔 아이가 몇

달이 지난 후 가보니 “살이 포동포동하고 젓냄새 났다”라든가, “부처님한테 빌었더니 이런 저런 이적이 나타났다”라든가, 고승과 관련되어 “이런 저런 이적이나 신이한 일이 발생했다” 등의 이야기는 <홍법>편 이하 모든 편에 거의 등장하는 내용들이다.

이렇듯이 일연이 기이편 서문에서 ‘신이한 내용을 기록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삼국유사』에는 卷 第1인 ‘紀異편’은 물론이러니와, 마지막 9. 孝善篇까지 ‘신이하고도 기이한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避隱편 <布川山 五比丘 景德王代>도 다음과 같이 신이하고도 기이한 이야기도 구성되고 있다.

敵良州의 동북쪽 20里 가량 되는 곳에 布川山이 있다. 石窟이 기이하고 빼어나 마치 사람이 깎아 만든 것 같았다. 성명이 자세치 않은 다섯 比丘가 있었는데 여기에 와 아미타물을 염하고 서방정토를 구하기 몇 십 년에 홀연히 聖衆이 서쪽으로부터 와서 그들을 맞이했다. 이에 다섯 비구가 각기 연화대에 앉아 하늘로 날아 올라가다가 통도사 문밖에 이르러 머물러 있었는데 하늘의 음악이 간간이 들려왔다. 절의 중이 나와 보니 다섯 비구는 無常苦空의 이치를 설명하고 유해를 벗어버리더니 큰 광명을 내비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유해를 버린 곳에 절의 중이 亭子이름을 置樓라 했으니 지금도 남아있다.

비구, 즉 여스님들이 “연화대에 앉아 하늘로 날아 올라가다가 유해를 벗어버리고 서쪽, 즉 서방세계인 극락으로 갔다는 이야기이다.” 신이하고 괴이하다. 그것도 1명이 아니라 5명이다. 모두 하늘에 올라가 자신의 유해를 벗어버렸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역시 어느 정도는 糖衣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때 음악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으며 이 와중에 다섯 비구는 無常苦空의 이치를 설명하고 큰 광명을 내비치면서 서쪽(서방정토 의미)으로 갔다는 이야기 답이다. 여기에다 사실이라는 징표로써 “그들이 유해를 버린 곳에 절의 중이 정자 이름을 置樓라고 했으며,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징표가 있는 이야기는 사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이적

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부처님의 이적이라서 신기하고 신이할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感通”편에도 등장한다. 바로 <郁面婢念佛西昇>조이다. 옥면에 관한 이야기는 동시에 2가지가 전한다. 즉 <鄉傳>과 <僧傳>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경덕왕 때 강주의 남자신자 수십 명이 뜻을 서방에 구해서 州의 경계에 미타사를 세우고 만일을 기약하여 契를 만들었다. 이때 아간 貴珍의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을 옥면이라 하였다. 그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마당에 서서 중을 따라 엮불했다. 주인은 그녀의 직분에 맞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매양 곡식 두 섬을 쥐 하루밤 동안에 다 쫓게 하니 계집종은 초저녁에 다 쫓어 놓고 절에 가서 엮불하여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뜰 좌우에 길다란 말뚝을 세워 두 손바닥을 꿰어 노끈으로 꿰어 말뚝 위에 매고는 합장하면서 좌우로 흔들어서 자기를 격려했다. 그때 하늘에서 부르는데 “옥면량은 당에 들어가 엮불하라”하였다. 절의 중들이 듣고 계집종을 권해서 당에 들어가 전처럼 정진하게 했다. 얼마 안되어 하늘의 음악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오더니 옥면은 몸을 솟구쳐 집 대들보를 뚫고 올라가 서쪽으로 교외에 가더니 해골을 버리고 부처의 몸으로 변하여 연화대에 앉아서 큰 광명을 발사하면서 서서히 가버리니 음악소리는 한참동안 하늘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당에는 지금도 구멍이 뚫어진 곳이 있다고 한다.(이상은 <鄉傳>에 있는 말이다)

<僧傳>을 상고해보면 이렇하다. 棟梁 八珍은 관음보살의 현신이었다. 무리들을 모으니 일천명이나 되어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노력을 다했고 한 패는 정성껏 도를 닦았다. 그 노력하는 무리들 중에 일을 맡아 보던 이가 戒를 얻지 못해서 畜生道에 떨어져서 부석사의 소가 되었다. 일찍이 불경을 등에 싣고 가다가 불경의 힘을 입어 아간 貴珍의 집 계집종으로 태어나서 이름을 옥면이라고 했다. 옥면은 일이 있어 下柯山에 갔다가 꿈에 감응해서 드러서 불도를 닦을 마음이 생겼다. 아간이 집은 혜숙법사가 세운 미타사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다. 아간이 항상 그 절에 가서 엮불하는데 옥면도 따라가서는 뜰에서 엮불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기를 9년, 을미년 정월 21일에 부처에게 예배하다가 집의 대들보를 뚫고 올라가 소백산에 이르러 신 한 짝을 떨어뜨리어 그곳에 菩提寺를 짓고 산 밑에 이르러 그 육신을 버렸으므로 그곳에 제 2 보계사를 지었다. 그 전당에 방을 써붙여 「最面登天之殿」이라 했다. 집 마루에 뚫린 구멍이 열 아름이나 되었으나 아무리 폭우나 세찬 눈이 내려도 집

안은 찢지 않았다. 그 뒤에 호사자들이 금탑 一座를 만들어 그 구멍에 맞추어서 承塵 위에 모시어 그 이상한 사적을 기록했으니 지금도 그 방과 탑이 아직 남아있다. 옥면이 간 뒤에 귀진도 또한 그 집이 신이한 사람이 의탁해 살던 곳이라 해서 집을 회사하여 절을 만들어 범왕사라 하고 田, 民을 바쳤다. 오랜 뒤에 절은 없어지고 빈터만 남았다.

<향전>과 <승전>에 수록된 두 이야기담은 결국 ‘① 보잘 것 없는 평범한 인물, 그것도 여자들이 열심히 도를 닦다. ② 그 정성에 하늘(부처님)이 감복하다. ③ 하늘에서 도움을 준다. ④ 신기한 현상이 발생한다. ⑤ 그녀들은 서방세계, 즉 극락으로 바로 간다. ⑥ 증표가 남는다’등이다. 각 편이 이야기 줄거리나 사건, 에피소드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위에서 제시한 기본 골격은 동일하다. 즉, 동일한 주제에 사건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이야기로 직조되는 경우인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주제는 사실 <삼국유사> 여러 편에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避隱’편 <布川山 五比丘 景德王代> 이야기와 기본 골격 및 주제, 교훈이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주제이며 교훈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평범한 여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신이한 현상, 즉 연화대에 앉은 채 하늘에 떠서 신체를 벗어 던지고 바로 서방세계로 갔다는, 그리고 그 때 하늘에서 음악소리와 광명이 비쳤다’는 기본 골격적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한 이야기담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것은 동일한 주제나 교훈에 다양한 당의가 입혀졌음을 반증하는 예들이다. 즉 어떤 당의가 입혀지느냐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야기로 구성되는 경우이다.

종교적인 사적을 제시한 맨 마지막 구성은 <효선>편이다. 이 <효선>편에는 신이한 이야기담이 『삼국유사』를 통털어 가장 적게 등장하고 있다. 즉, <효선>편은 <眞定師 孝善雙美>, <大城孝二世父母 神文王代>, <向得舍地割股親 景德王代>, <孫順埋兒 興德王代>, <貧女養母> 등 5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삼국유사』 전편을 거쳐서 가장 적은 분량에 소수의 작품이 제시된다. 이 <효선>편의 주제는 제목이 상기하

듯이 주로 '효'와 관련된 이야기로 구성되며, 이들 작품의 공분모적 주제는 효와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다. 특히 곳에 등장하는 이야기담이 제시하는 '효'는 오늘날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허벅지를 잘라서 봉양하거나」<向得舍地割股親 景德王代>, 「양친을 위해 절을 세우거나」<大城孝二世父母 神文王代>, 「거친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공양」<貧女養母>하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의 어린 아들을 생매장」<孫順埋兒 興德王代>하기도 한다. 발상 자체가 현대인의 시각이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을 지닌다. 하지만 이 '효'는 '불교 사상'과 씨줄날줄처럼 연계되어 직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효는 '불교적 측면에서의 효'가 된다. 이를테면 '홀로계신 어머니를 돌보기보다는 혼자 사는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머리를 깎고 도'를 닦으러 가는 것이다.<眞定師 孝善雙美>. 여기에서도 돌을 닦으러 가는 주체자인 아들은 어머니의 설득에 의해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곳에서의 개인의 효는 '불교', 즉 '부처님'의 종속개념이며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이 극히 개인적인 '효'도 '신이성'과 맞물린다. 즉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아이를 생매장하려고 땅을 파자 '종'이, 그것도 소리가 상당히 맑은 종소리가 나와서 대궐까지 알려지게 된다는 것, 석불을 조각하고자 하여 큰 돌 하나를 다듬어 놓았는데 돌이 갑자기 세 조각으로 잘려서 어렴풋이 즐았는데 밤중에 天神이 내려와 다 만들어놓고 돌아갔다는 것, 아이가 태어나면서 '대성'이라는 두 자가 세겨진 금간자를 쥐고 있었다"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신이편> 서문에서 일연이 언급한 '신이한 내용'은 전 『삼국유사』를 관통하는 일 주제이며 일연의 주된 의도 및 전략이 된다. 일연이 『삼국유사』 서문에서 밝힌 의지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공고한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없이 당대에 유행하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수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 <신이>편 서문에 일연 자신의 의지

나 의도 등을 밝힌 것도 이미 계산된 전략이었던 것이다.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고승이었던 일연이 <홍법> 편 이하 불교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리 ‘신기한 내용’이라도 ‘괴력난신’이라고 생각하지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었으리라는 점이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신이>편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신기하고 기이한 내용이라도 불자들, 특히 일연과 같은 고승들은 당연히 <홍법>편 이하의 내용은 부처님의 신력에 함유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신이>편과 <홍법>편 이하는 분리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연은 <삼국유사>을 작성한 자신의 의도 및 의지를 처음 등장하는 <기이편>에 넣었을 것이다.

이렇듯이 일연은 우리 선조들이 세웠던 국가의 기틀과 뿌리, 연원이 되는 시조나 시조모 등의 정체성 및 종교적인 측면(부처님, 절, 이적, 전과과정, 선사) 등을 신이한 이야기를 통해서 밝히려고 의도하고 있다. 서문에서 언급한 ‘신이성’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삼국유사>를 대표하는 일 징표인 ‘신이성’은 인류역사상 문자가 존재하지 않던 당시의 여러 구비물이 오랫동안 회자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고 전달, 전파하도록 특별한 장치, 즉 비유나 상징을 이용해서 신이하고 이상하고 특이한 이야기담으로 포장했던 결과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대의 문학적 용어를 빌자면 결국 糖衣가 입혀진 것이다. 이렇듯이 문학적 당의가 입혀져서 신이하고 괴이하고 이상한 이야기담으로 변신한 다음에야 비로소 인구에 회자되면서 오랜 시간 보존되어 오다가 비로소 기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文學糖衣는 口碑物의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설화는 표면적으로는 황당무계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거나 비논리적인 인물, 사건 등으로 구성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어떤 중요한 교훈과 가치를 담고 대대로 전달되는 이야기담이며, 일연은 이렇듯이 황당한 이야기 속에 내재한 진실과 사실, 교훈 등을 간파하고 인정하고 납득했기에 사료로서 수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연은 문학적 마인

드를 가지고 문학이 가지고 있는 糖衣說(명칭은 몰랐겠지만)의 장점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구조는 문학적 방식과 사관으로 접근할 때 보다 진실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언

본고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는 어떤 목적의식이나 이념이 있었을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삼국유사 텍스트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며, 삼국유사의 글쓰기 전략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미 일연은 『삼국유사』 서문에서 자신이 이 글을 찬술하고 있는 목적 및 의도를 밝히고 있었다. ‘서문’에 의하면 『삼국유사』를 찬술하는 목적은 바로 “괴력난신”적인 내용을 수록하는 것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종교(불교)’의 이입과정 및 전파, 영향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으며, 『삼국사기』가 연대를 제시하면서 체계있고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사료를 제시하는 것에 비해서, 『삼국유사』는 인물 중심으로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실리지 못하고 누락된 ‘괴력난신적 이야기’를 수록하는 것, 국가 및 종교와 관련된 사건을 좀 더 ‘생생하게 입체화해서 실감있게 수용되도록 하려는 목적’이 바로 일연이 『삼국유사』를 작성한 의도된 전략인 것이다. 그리고 “괴력난신”적 내용이란 바로 세간에서 지칭하는 ‘설화적 내용이나 서사담’에 해당되었고, 일연이 언급한 ‘괴력난신’은 ‘삼국유사’ 텍스트에서는 ‘기이’로 표현되고 있었다. ‘괴력난신’은 타인이 보내는 비판적 語句일 뿐이며, 실은 ‘신이한 내용을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일연의 본 의도이며 지향하는 바였다. 이러한 일관된 사관은 그 후의 내용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기이편’ 다음인 ‘홍법편’부터는 ‘종교(불교)’와 관련되는데, 원래 ‘종교’ 자체가 ‘신이’

와 밀접히 연결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서문에서 언급한 ‘신이한 내용’은 전 『삼국유사』를 관통하는 일주제이며 일연의 주된 의도였으며 『삼국유사』라고 명명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설화는 표면적으로는 황당무계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거나 비논리적인 인물, 사건 등으로 구성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어떤 중요한 교훈과 가치를 담고 대대로 전달되는 이야기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연은 이렇듯이 황당한 이야기 속에 내재한 진실과 사실, 교훈 등을 간파하고 인정하고 납득했기에 사료로서 수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구조는 이러한 방식과 사관을 가지고 이해할 때 보다 사실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연은 문학적 마인드를 가지고 문학이 가지고 있는 糖衣說(명칭은 몰랐겠지만)의 장점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결국 역사를 문학적 예술방식으로 승화시킨 것이 『삼국유사』인 것이다. 일연의 『삼국유사』 저술 의도는 당대에 구전되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는 신이한 이야기가 진실 및 사실을 전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내용이든지, 혹은 불교적 내용이든지 간에 『삼국유사』에 실린 작품은 표면적 내용 그대로의 단선적인 독해로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며, 중층적이고도 심도있는 이면적 내용의 고구가 병행될 때 삼국유사의 독해는 완벽히 이루어질 것이고 일연의 진정한 화법이 밝혀질 것이다. 또한 수수께끼를 내는 일연과 만나게 될 것이며 비로소 진정한 담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지면 제약상 일연의 『삼국유사』의 기술전략의 하나인 ‘신이적 내용’에 대한 일연의 의도 및 목적은 후속 논문(삼국유사의 예술방식)에서 밝히고자 한다.

▷접수일 : 2010.04.13 / 심사일 : 2010.05.07 / 심사완료일 : 2010.05.15

<참고 문헌>

- 『삼국유사』, 『고려사』
- 강명혜, 「단군신화 새롭게 읽기」, 『동방학』 13집, 한서대학교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05.
- 강명혜, 「江原道 民俗信仰의 特性과 起源 및 文學作品과의 관련성」, 『강원문화연구』 제19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0.
- 강명혜, 『고려속요 . 사설시조의 새로운 이해』, 북스힐, 2002.
- 고운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1·2, 현암사, 2002.
- 고운기, 「삼국유사의 讚詩와 그 體裁上 역할에 대하여」, 『삼국유사연구』, 일연학연구원, 2005
- 권희경,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려적 시각」, 『서지학연구』, 2000.
- 김두진, 「삼국유사의 체제와 내용」, 『한국학논총』 23, 2000.
- 김두진, 「일연의 생애와 사상」, 『전북사학』 19, 2002.
-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 20, 1978.
- 김열규, 신동욱편, 『삼국유사의 문예적 가치해명』, 새문사, 1982.
- 김영태, 「삼국유사의 체제와 성격」, 『동국대학논문집』 11, 1974.
- 김태영,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 비평사, 1976.
- 김택규, 「삼국유사의 사회, 민족지적 가치」, 『삼국유사연구론선집』1, 백산자료원, 1986.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남동신,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징」, 『불교학연구』 16, 불교학연구회, 2007.
- 민족문화연구소편, 『삼국유사연구』상, 영남대출판부, 1983.
- 박진태, 『고전산문교육의 이론』, 집문당, 2000.
-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2002.
- 손진태, 「삼국유사의 사회사적 고찰」, 『학풍』 2권 1/2호(『손진태선생전집』 6, 태학사, 1949.

- 신라문화선양회 편, 『삼국유사의 신연구』 서경문화사, 1991.
- 심종원, 『삼국유사 새로읽기(1); 기이편』, 일지사, 2004.
- 안계현, 「일연」, 『한국의 사상가 十二人』, 현암사, 1975.
- 안외순, 『『삼국유사』에 관한 정치학적 一讀』, 『온지논총』 23, 온지학회, 2009.
- 예철해,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이 갖는 한국교육사적 의의」, 『종교교육학연구』 24, 2007.
- 윤친근, 「일연의 불교문화 사관」,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동서철학연구 47호, 2008.
- 이강래, 「한국고대사를 위한 삼국유사의 독법」, 삼국유사연구회, 2005.
-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진단학보』 36, 1973.
- 이남영, 「삼국유사와 승 일연과의 관계 고찰」, 『철학연구』 2, 서울대, 1973.
- 이도흠, 「삼국유사의 구조 분석과 의미 해석」, 『한국학논집』 26,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 이범교 역해,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상)』, 민족사, 2005.
- 이재운, 「삼국유사의 시조설화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 『전북사학』 8, 전북대 사학회, 1984.
- 이재호, 『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출판부, 1983.
- 정구복,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보고 논총』 8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정대구, 「삼국유사와 중/일 불교전구문학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정병삼, 「신라불교사상사와 『삼국유사』 의해편」, 『불교학연구』 16, 2006.
- 정출현,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세계관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28, 안암어문학회.
-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 조동일, 『삼국유사의 신연구』, 신라문화선양회, 1980.
- 중앙승가대학편, 『일연과 삼국유사』 1-17권, 민족문화출판사, 1992.
- 지준모, 『삼국유사의 어문학적 연구』, 이회, 2005.

- 채상식, 「일연(1206-1289)의 사상적 경향」, 『한국문화연구』 창간호, 1988.
- 하정룡, 이근직, 『산국유사교감연구』, 신서원, 1997.
- 하정룡, 『삼국사기 사료비판』, 민족사, 2005.
- 하정현, 「삼국유사 텍스트에 반영된 ‘신이’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3.
- 하현강,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사관」 『독서생활』 6월호. 삼성출판사, 197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조은문화사, 1987.
- 한종만, 『일연의 중편조동오위 연구』, 한국불교학 23, 1997.
- 홍운식, 『삼국유사와 한국고대문화』,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5.
- 화경고전문학연구회편, 『삼국유사의 문학적 탐구』, 이화문화사, 2008.
- 황패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9.
- G.L.Gomme, Standard of Dictionary, Folklore, Mythology and Legend, Funk and Wagnalls Company, New York, 1950.

Abstract

The expressed his written purpose and intention of <Samguk Yusa>

/ Kang, Myoung-Hye

The manuscript is premised that a certain sense of purpose and ideology will be existed where Ilyon compiled Samguk Yusa which will be clarified by the text and characteristics of Samguk Yusa

Ilyon had already expressed his written purpose and intention of Samguk Yuan in the preface. According to the preface, the purpose of Samguk Yusa is contained the content of 'Goeryeoknanshin' which explains unbelievable status and mysterious existence that is hardly to explain in rationality. Not only for this, but also Samguk Yusa considerably dealt with an introductory process of religion(Buddhism), propagation, and influences which Samguk Sagi never treated about. Compared with Samguk Yusa to Samguk Sagi which presented the chronicle and historical documentary, Samguk Yusa is explained a certain incident revolved around a personage. Hence, Samguk Yusa published with story of Goeryeoknanshin and tried to embrace the story related to the nation and religion more lively and more realistically which shows strategically written purpose of Ilyon. The story of Goeryeoknanshin is critics from others so the reality is that Ilyon mainly intended to write amazing and bizarre story for record and it is what he pursued. Therefore, the amazing and bizarre story is indicated that Ilyon's main purpose of his intention and the reason why Samguk Yusa is given a name to.

Key words: mysterious existence, literal-device, oral literature, written purpose, literal- minded, the subject matter, lesson.